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어릴 적 동생과 심하게 다툰 어느 날,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걱정으로 조마조마 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동생과 다툰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적 내가 경험하게 된 ‘용서 받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용서 받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체험은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고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채무자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이가 탕감해 준 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여인의 행동과 바리사이의 행동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모시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바리사이인 시몬은 당시 유명한 예수님을 인사치레로 초대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맞이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많은 여인은 눈물로 지난 시간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인과 바리사이의 큰 차이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용서 받음을 체험한 죄인인 여인과 용서 받음을 체험하지 못한 바리사이 시몬,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지금의 나는 과연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이 둘의 모습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망설이는 모습과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 말입니다. 죄가 많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를

기쁘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죄에 억눌려 머뭇거리고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용서 받으러 옥함이 아닌 우리 마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합니다. **최대근(야고보) 신부**

연중 제11주일 <사랑의 기술> 장재봉신부님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십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분께서는 죄에 얽혀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른 행위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실천하셨습니다.

율법의 힘은 그날 다윗이 스스로 죄지은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죄를 모르시는 하느님과과의 관계를 처음처럼 말끔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상대의 장점을 복돋우며 상대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좋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함께 하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불화하고 해를 끼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함께 하는 일 더욱이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품어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 싶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애타셨던 식탁의 분위기는 썰렁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는 무성의에 초대받은 쪽의 입장은 그리 유쾌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난데없이 찾아든 불청객마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참으로 율법에 어긋난 죄인이라서 절대로 가까이할 수 없고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면 초대된 손님을 위해서라도 좋은 식탁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얼른 내보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게으름직한 마음을 쏙 감추고 시치미를 딱 떼고 점잖을 떨면서 그 틈에 얼른 주님이 예언자인지 아닌지나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자기 속셈만 차리고 있으니 정말 졸렬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세, 신앙의 독단적 자세, 하느님을 믿되 자기생각만 하고 자기에게 덕 될 것만 추구하고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것만 취하는 모습은 한 마디로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는 하느님이 계명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나’를 숭배하는 작태입니다.

오늘 내 삶 안에서하느님마저도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를 살피기 바랍니다.

믿음마저도 내 속셈을 차리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지 세밀히 따져보기 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죽이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그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취한 결단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고 인내하는 기술을 익히고 협동과 이해와 관용을 닦고 화해의 기술까지 학습하기 위해서 끝없이 상대를 판단하는 이 비뚤어진 속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청하기 바랍니다.

꼭 이겨야만 시원해지는 그 모자란 속을 그분께 뭉땅 던져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죄 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 죄 값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두 치루셨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어색하고 멧쩍고 민망한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피 값으로 얻은 매우 소중한 자녀로 맺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오로 사도처럼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수없이 입을 맞추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상대가 원하기 전에 모두를 내어주는 사랑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 예수성심 성월 기도 ◆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홀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본 당 소 식

◎ 천교안내

오늘 미사 후 천교를 위해 사목회에서 차와 도넛을 준비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다음 주 부터는 각 구역으로 돌아가며 천교 준비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7월 사목회의 안내

6월 27일 주일미사후에 있습니다. 사목위원과 구역장 모두 참석바랍니다.

◎ 6월 구역모임 안내

▶키치너 19일 7시 교육관

▶브랜포드 25일 7시 이 민 형제덕

▶캠브리지

▶워털루 1구역 26일 7시 유 무열 형제덕

2구역 26일 6시 부 승민 자매덕

3구역 19일 7시 최 동호 형제덕

4구역 25일 6시 구 본우 형제덕

◎ 목주기도 안내

본당 발전과 사제를 위해 그리스도의 모친 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청원 하는 목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께서는 필히 목주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15분 시작되며 시간엄수 바랍니다)

선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6월 13일- 재정분과장 백옥현 안셀모

6월 20일- 전례신심분과장 최희수 카타리나

6월 27일- 선교분과장 박재영 바오로

◎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성안토니다니엘 성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원인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본당 보다 더 깨끗이 사용하고 소등 및 문단속등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니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관/사제관 관리 안내

▶구역별 월 2회 잔디 관리 및 청소 담당

7월 : 캠브리지

8월 : 워털루 1 구역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일 시 ; 6월 18일(금) 오후 7시

▶장 소 : 교육관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는 신청하여 주세요

◎ 안내/헌금 담당

▶7월 : 브랜포드 구역

▶8월 : 키치너 구역

각 담당 구역에서는 2인 1조로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미사 준비와 마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6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78.00
교 무 금 : \$ 905.00
감사헌금 : \$
성전건립 : \$ 100.00
성모님동산 (누계):금주\$ 5 (\$5890.00)
합 계 : \$1683.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10-24호

2010. 6. 13.

연중 제 11주일

해설 김 손권

차주 해설 최 우석

성 가

입 당 (1) 나는 믿나이다

봉 헌 (210) 나의 생명드리니

성 체 (166) 생명의 양식

되 장 (201) 은총의 샘

화 답 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영성체후 묵상

최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적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채권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죄가 결코 믿음보다 클 수 없으며, 믿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용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독 서

6월 13일 노재현 노정은

6월 20일 고영호 고기숙

봉 헌

6월 13일 이동기 이정숙

6월 20일 노재현 노정은

복 사

6월 13일 구한힘 김건우

6월 20일 류지현 이수민